

세계韓民族과학기술자

共同協議體구성하자

鄭助英

科總회장직무代行
韓國대표단團長

존경하는 세계韓民族과학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中國朝鮮族과학가협회 姜貴吉 회장님, 중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 중국과학기술협회 회장님, 朝鮮과학기술총연맹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자리에 참석하신 과학기술인 여러분!

오늘 이곳 세계대국 中國 吉林省 延吉市에서 개막되는 역사적인 「'91국제과학기술학술대회」에서 大韓民國대표단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감개 무량함을 금할길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대회는 지난 1990년 大韓民國 서울에서 있었던 「세계韓民族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가 시발점이 되고 중국조선족과학가협회가 중심 역할을 하여 조직되었으며 그동안 여러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여 성사되었다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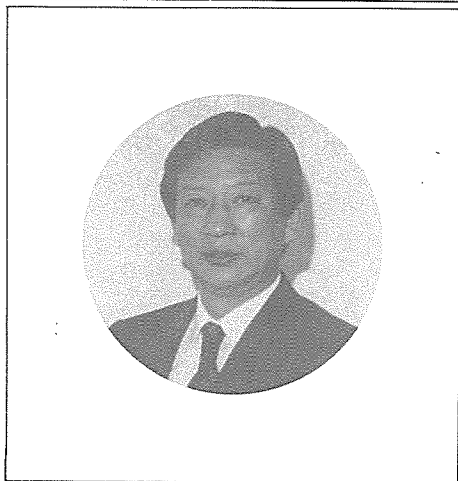
이 자리를 빌어 중국조선족과학가협회 姜貴吉 회장님과 延邊州과학기술협회회장과 지난 1년 동안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대회조직위원회 임직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과학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학문을 발표하고 토론함은 물론 최신정보를 서로 교환하는데에 근본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경제의 要諦인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각자의 이익을 추구함은 물론 인류공영과 평화에 공헌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다함께 함으로써 한민족의 우수성과 창조성을 도출해 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日本제국주의의 질곡에서 벗어난 우리의 조국이 광복의 빛을 찾자마자 東西冷戰의 소용돌이에 말려 南北으로 분단된지 어언 반세기동안 한 가족끼리 헤어지고 동포끼리 서로 만나보지도 못하면서 반목과 대결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 민족만큼 이와같이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7천만 韓民族은 그동안의 질곡과 비극 그리고 비통과 좌절에서 과감히 과거를 박차고 세계潮流에 발맞추어 평화와 화해 그리고 이



해와 사랑의 기치아래 한덩어리로 화합하고 뭉쳐야 할 통일의 문턱에 와있다고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한민족과학기술인 여러분!

지금 지구촌의 여러나라들은 理念과 體制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인적, 물적 자원은 물론 知的소유권까지 무기화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의 Know-How는 이전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은 이와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中國조선족과학기술협회가 이번 대회를 조직하고 준비하게 된 것은 先見之明이 있다고 하겠으며 여러분과 같이 그 공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1국제과학기술학술대회」에서는 화학·수학·지질·조경·약학 등 5개분과에서 주옥같은 귀중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열띤 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학문의 金字塔이 이루어지게 되길 크게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개최되는 「'91국제과학기술학술대회」는 학술발표를 통하여 앞으로 격의없이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7천만 동포의 영원한 생존과 번영을 위한 礎石을 創出해 내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그리고 한민족이 서로 도우면서 취약한 과학기술을 상호보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체육과 예술교류보다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인은 이자리를 빌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 성공적이고, 획기적인 결실을 맺는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갖게 됨으로써 이번 대회의 의의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상호보완 측면에서 國境없이 과학기술을 적극 지원한다.

둘째, 우리는 과학기술용어의 통일, 기상교류, 資源공동개발, 첨단기술공동개발팀 구성등을 추진한다.

셋째, 우리는 수학올림피아드 南北단일팀 구성, 각종 과학기술자료의 교환, 공동조사, 과학기술학술대회 개최, 과학기술인 교류 등을 추진한다.

결론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독일, 영국, 불란서 등 세계 각국에 결성되어 있는 在外한민족과학기술자협회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그리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한덩어리가 되어 이와같은 우리의 공동의 문제를 성취할 수 있도록 「世界韓民族과학기술자共同協議體」를 구성할 것과 그리고 「다음 학술대회 개최지를 平壤으로 하도록 할것」을 여러분께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많은 성원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在中北方조선족과학기술협회 姜貴吉회장님 그리고 中國 延邊州 과학기술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드리면서 水陸萬里를 불구하고시고 세계 각국에서 참석하여 주신 동포과학기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하고자 합니다.

이 대회를 성사시키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여 주신 朝鮮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부위원장님, 金순경 초대在美과학회회장님, 金재일 前 在歐科聯회장님, 河태국 스위스과학회회장님의 용단을 높이 치하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행복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조국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고자 합니다.